

페이퍼코리아 공장 군산에 '첫 삽'

1단계 사업 산업단지 공장 준공·이전·기존 공장 철거 등 진행... 2023년 복합도시 건설

국내 최초 제지회사인 페이퍼코리아(대표 변수형)가 전북 군산공장 이전 1단계 사업을 성공리에 마치고 준공식을 가졌다.

페이퍼코리아는 20일 군산시 비응도 동 군산 2 국가산업단지에서 열린 준공식에는 문동신 군산시장과 박정희 군산시의회의장, 채경석 공장이전추진위원장 등이 참석해 성공적인 공장 이전을 축하했다.

공장 이전 사업은 도심의 공장을 산업단지로 이전하고, 기존 공장 부지(56만여㎡)를 복합도시(주거, 환경, 교육, 문화 시설 등)로 개발하고자 이뤄졌다.

1단계는 산업단지 공장 준공 및 이전, 기존 공장 철거, 기반시설 준공 등으로 진행됐으며, 2단계는 기존 공장 부지에 6416가구(계획인구 1만7323

명)의 복합도시로 건설하는 사업으로 2023년 마무리될 예정이다.

신축된 공장은 9만5868㎡의 부지에 바다면적 1만6797㎡, 연면적 2만5737㎡의 3층 규모로 현재 연간 17만 의 생산능력을 갖췄다.

올해 2차례의 보완투자를 거쳐 연간 총 27만톤의 생산 규모를 보유한다는 계획이다.

생산품목은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용 지와 특수지, 친환경 재생필프 제품, 종이 가공제품 등으로 다변화했다.

변수형 페이퍼코리아 대표이사는 "페이퍼코리아는 1943년 군산 조촌동에서 복산제지로 시작해 1954년 고려제지, 1973년 세대제지, 1985년 세풍, 2003년 페이퍼코리아로 이어지며 국내 제지업계를 선도해 왔다"고 설명 했다.



20일 오전 군산시 비응도 동 군산2국가산업단지에서 페이퍼코리아 군산공장 준공식 행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페이퍼코리아 제공)

이와 "74년의 조촌동 공장을 뒤로하고 국가산업단지에서 새롭게 시작하도록 도움을 준 분들께 감사의 드린

다"면서 "향토기업으로써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

중기청, 4차 산업혁명 선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은 기업의 공정별 스마트화 수준에 따라 기업별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은 스마트공장 미 구축 기업에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IoT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스마트공장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입에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하며, 생산현장 디지털화 사업은 스마트 공장 구축 기업을 대상으로는 스마트공장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연계시스템 추가 구축 및 기존 시스템과 연동 설비 구축 등에 최대 1억8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업의 신청대상은 국내 중소·중견 기업으로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민간 합동 스마트추진단의 전문 코디네이터가 현장을 방문하여 기업의 스마트화 정도를 진단하고, 스마트공장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기업을 선정하게 되며, 사업 진행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전문 코디네이터가 기업을 방문하

여 컨설팅을 하는 등 사업 종료 시까지 기업 맞춤형 지원을 할 예정이다.

중 사업은 전년도까지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추진하던 사업으로 중소기업 밀착지원을 위해 올해부터는 중소기업에서 추진하며, 참여 중소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청서류를 간소화(10종→4종)하고 정부지원금에 대해 선금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김광재 청장은 "기존 생산방식으로는 품질향상 및 기업성장에 한계가 있다며 스마트공장 도입의 전환을 통해 생산성 향상, 근로환경 개선 등 기업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민간합동 스마트공장추진단 사업관리시스템(<http://bms.smart-factory.kr>) 또는 정보화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it.smpplatform.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기타 등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문서는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제품성능기술과(TEL 063-210-6455)로 하면 된다. /이성민 기자

국내 카드사 순익 30% 감소... 가맹점 수수료 인하 여파

가맹점 수수료 인하 여파에 지난해 국내 카드사들의 순이익이 2013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가 소상공인 대책으로 올해 7월 수수료 추가 인하를 예고하고 있어 수익성 악화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이 20일 발표한 '2017년 카드사 영업실적' 자료를 보면 지난해 8개 정액카드사의 순이익은 1조 2268억원으로 전년(1조8132억원) 대비 32.3%(5864억원) 감소했다.

이는 2013년(1조7000억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카드사 순이익은 2014년 2조2000억원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2015년 2조원, 2016년 1조8000억원으로 계속 줄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카드사 순이익이 크게 감소한 것은 정부가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2% 수준)보다 낮은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 가맹점 범위를 크게 확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지난해 7월 0.8%의 수수료를 이 적용되는 영세 가맹점을 연 매출액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 1.3%의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중소 가맹점은 연 매출액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부가서비스 등 마케팅 비용이 크게 늘고 총당금 적립 기준 강화 등에 따른 대손비용이 증가한 것도 순이익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카드사별로 보면 비씨카드(1441억원)를 제외한 7개 카드사의 순이익이 모두 줄었다. /뉴스

신한(4227억원), 국민(1626억원), 우리(403억원) 등이 40% 넘게 감소했고 삼성(3161억원), 현대(1538억원) 등도 각각 2.5%, 10.8% 줄었다. 롯데(-128억원)는 적자로 돌아섰다.

문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올해 7월 카드 수수료 원가 항목 중 하나인 VAN 수수료의 부과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는 것이다.

기존 결제건별로 동일 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정액제)에서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정률제)으로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제도 개선 시 소액결제 업종 약 10만개 가맹점에 평균 0.3%포인트(약 200~300만원)의 수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지난해말 신용카드 발급매수는 9946만매로 전년말(9564만매)보다 4.0%(382만매) 증가했다. 체크카드는 1억 1035만매로 전년말(1억848만매) 대비 1.7%(187만매) 늘었다.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등 카드대출 이용액은 98조4000억원으로 전년(97조 9000억원) 대비 소폭 증가했다.

금융원은 "제삼각기시' 경쟁을 통한 과도한 마케팅 활동을 자제하고, 부수업무 활성화 등으로 카드사의 수익원 확충을 유도할 계획"이라며 "카드사의 영업관행 개선 과제도 차질없이 추진해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뉴스

카드없이 앱으로 바로 결제 모바일 간편 계좌결제 활성화

앱투앱 계좌결제서비스 기반 조성... 인센티브 제공

정부가 카드사나 VAN(가맹점)사 등을 이용하지 않고 앱을 통한 계좌이체 방식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모바일 결제 활성화를 추진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0일 오후 서울 마포 서울창업허브에 있는 핀테크지원센터에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수수료가 적고 간편한 방식의 계좌 기반 모바일 결제를 활성화하고, 이를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전자금융업자들이 별도 단말기나 뱅킹 등이 불필요한 앱투앱(App-to-App) 계좌결제서비스 사업에 진출하도록 사업기반 조성을 지원한다.

새로운 계좌기반 결제서비스가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한다. 온라인 사업자에 대해 매출액이 영세(3억 이하)·중소(3억~5억) 규모에 해당하면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우대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혁신적 금융서비스에 대한 실험·지원에도 나선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혁신적 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시범인가, 개별 규제면제 등 특례를 적용한다. 최대 2년 범위 내 지정할 수 있으며 이후 2년 연장이 가능하다.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혁신 금융 서비스를 금융회사에 위탁해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위탁테스트는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금융회사의 업무를 위탁받아 핀테크 기업이 혁신 금융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는 지

정대리인 제도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성장사다리펀드 중 일부는 핀테크 특화 펀드로 조성하고, 해외진출 및 R&D 지원도 병행한다.

자본시장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비대면 투자일임·신탁계약 허용 등을 추진한다. 건강증진형 혁신 보험상품 출시, 온라인 소액 보험판매 허용, 자율주행차 보험 개발 등 인슈테크 도입도 촉진한다.

금융권 개별 및 공동 오픈API 활성화를 병행 추진해 핀테크 기업이 손쉽게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금융권별에 이어 은행·보험권 블록체인 본인확인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금융권 블록체인 활용 분야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혁신기술 보안진단·컨설팅 지원 등 핀테크 혁신에 따른 새로운 리스크를 관리하고 금융보안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IT를 활용한 규제 기술인 '레그테크' 활용 분야를 확대하고 AI,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감시 등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으로 핀테크 기업이 현재 207개에서 2022년 400개로 증가해 신규 일자리가 대거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자산관리 서비스를 받는 등 소비자 편의가 향상되고, 경쟁축인을 통해 금융시장 효율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

새마을금고, 군산·통영지역에 금융지원 시행

새마을금고는 20일 한국지엠(GM), 성동조선해양의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악화로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군산 및 통영지역에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금융지원은 ▲기존 대출자를 최대 1년 만기연장 ▲원리금 최대 6개월 상환유예 ▲신규대출 시 대출가능

액 범위내에서 0.3% 내외의 우대금리 적용 등이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특별경영안정자금을 적극적으로 취급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9월말까지이며 군산 및 통영시에 소재한 지역 새마을금고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뉴스

기사제보 288-9700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maeil.com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